

‘지지부진’ 송배전망 확충...광주·전남 전력수요 감당되나

해상풍력·AI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유치에 전력 사용 급등 예상

장성·영광 등 송전선로 건설 2년째 계획만...주민 설득 등 적극 나서야

광주·전남지역이 해상풍력, 국가AI데이터 센터, 빛가람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 지역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 산업 유치에 나서면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당장,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송배전 전력망 확충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최대 6년까지 지연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전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송배전 시설 반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절차가 지연된 데 따라 빚어지는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중화 가능 여부나 계획 노선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이 부족하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아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거밀집지역을 피해 검토한 최적 노선이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 주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려는 노력 등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3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2036년까지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20%,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2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열린 산업자원부의 광주·전남 전력계통 협의회에서는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꾸준히 증가해 2031년 말까지 약 42GW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을 정도다.

한전은 이에 따라 지역 전력 안정성을 높이고, 반

도체 등 특화단지의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할 전력망 확충을 위한 HVDC(초고압직류송전) 건설 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는 송배전 설비관련 56조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전회차(29조 3000억원)의 2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한전의 전력망 확충 공사는 평균 4년(345kV 송전선로 기준)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용지확보, 시공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통상 345kV 송전선로 기준 표준 공사기간은 9년임에도 현장에서는 평균 13년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인허가 단계에서 지자체의 행정절차 지연을 송전선로 준공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현재 4건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입지선정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345kV 신장성S/S)은 6년 5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한전은 변전소 이전 요구 등 입지선정이 기존 계획보다 55개월, 장성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부로 인해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22개월이 추가로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보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154kV 득량S/S)은 3년 9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변전소 지장 유무 조화 거부로 인해 24개월, 사업계획 공고 및 열람 거부 등으로 21개월 등이다.

영암군 건설사업(154kV 시중S/S)의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2년 3개월째 헛바퀴가 돌고 있다.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면 지자체도 주민 반발을 이유로 사업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

영광지역 또다른 송전선로 건설사업(154kV 서

영광S/S)도 비슷한 이유 등으로 한전 자체 계획보다 차질이 빚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비슷하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국가AI데이터 센터, 이차전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한 기업 유치가 나서고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 사업 활성화에도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한전측의 적극적인 송전선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업 발전 및 이상기후 등으로 매년 전력수요는 높아지는 가운데, 전력망 건설이 지속적으로 지연될 경우 비교적 발전 원가가 저렴한 발전기 가동이 어려워져 전기요금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전 측이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다가서려는 노력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혁신도시협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정례회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11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이주민들을 위한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사진〉

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등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조성된 11개 지자체는 지난달 14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혁신도시협의회 2024년도 정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토지공급지침 개정 등을 정부 등 혁신도시 유관기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9조 1항)를 근거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지에 기존 혁신도시들을 우선 배치하도



록 요청했다.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유입, 상권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이다.

또 오는 2025년 5월 완공 예정인 빛가람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비롯, 이미 운영 중인 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들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혁신도시 이주민들이 좁은 미흡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도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들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법안 마련도 요구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제도 권고치를 준수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수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수도 줄어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풀고 생활하다 타지로 대학을 간 뒤 졸업하는 경우 지역인재 채용 제도로 채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반복되는 금융사고...은행권, 대출 검증 강화

부당대출·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프로세스 전반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종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중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점포-인력 축소 추세 속에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취약성도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개선 과제로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데이터 터 징구 원칙을 규정화하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하게 된다.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과 관련한 검증 절차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본점이 직접 들여다보는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평가-검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실제성을 확인하고 용도 외 용용 점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삼자 현장 조사의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세일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본부 만들 것”

한병준 한전 광주전남본부장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일 한병준 본부장(사진)이 제 44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으로 취임했다.

한 본부장은 765kV 송전망 건설사업과 동남권 초고압 전력망 구축사업 등을 주도하고, 국내 송변전 계통망 개선 및 확충에 기여해 탁월한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본부장은 “광주전남본부장 전국 15개 한전

지역본부 가운데, 관할 지역이 가장 넓고 전력 특수 설비도 가장 많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병준 본부장은 전북대를 졸업하고, 평안도 헬싱키 경제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1993년 한전에 입사해 본사 송변전 운영처 변전운영실장, 서울본부 전력관리처장, 본사 송변전운영처장 등을 역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KISA,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 논의

내일 인공지능 보안 세미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KISA는 오는 5일 서울시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4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술력 향상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악성코드 제작 및 배포 등 다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 위협 사례를 공유하고 적합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I가 만든 사이버위협, AI가 막는 사이버위협’을 주제로 진행되며 AI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룬다. 또 인간과 AI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국내 1호 프로그래머인 권일영 교수의 ‘편리함의 역습’ 특별강연 ▲기업용(B2B) 대형인 어모델(LLM) 도입 사례 ▲AI LLM 해킹 기법 및 보안전략 ▲진화하는 사기, AI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으로 막는다 ▲AI 범죄와 보안대책 ▲AI 기반 보안 기술 및 적용 사례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AI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주세요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니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니로미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등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니 로 미 트 등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